

# “붉은 악마여, 광화문으로!” 어게인 2002년~

## KT-축구협회-붉은악마

한국 경기 열리는 18·23·27일  
가수들 사전 공연 등 거리응원  
티셔츠·파우치 등 경품도 제공



KT 모델들이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거리응원 진행 소식을 알리고 있다. /KT

지난 17년간 월드컵을 비롯한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지원하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부터 거리응원을 이끌어왔으며 T

V 광고와 온·오프라인 이벤트, 공식 응원 가를 제작하는 등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월드컵 첫 번째 거리응원은 대한

민국vs스웨덴 경기가 있는 18일 오후부

터 진행된다. KT는 18일 경기에 앞서 월드컵 응원가를 부른 가수들의 사전 공연을 연다. 오후 6시부터 열리는 공연에는 월드컵 응원앨범의 타이틀곡 'We, The Reds(우리는 하나)'를 부른 빅스의 레오와 구구단의 세정을 비롯해 트랜스픽션, 락킷걸 등이 무대를 선보인다.

24일 자정 열리는 대한민국 vs 멕시코 경기에서는 광화문뿐만 아니라 신촌 일대에서 동시에 행사가 열린다. 23일 저녁 신촌에서는 인기 개그맨이자 DJ인 박명수가 공연 펼치고 KT의 짧은 세대를 상징하는 브랜드인 'Y' 티셔츠, 여행용 파우치 6종 세트, 일러스트 에코백 등 경품을 제공한다.

예선 마지막 경기인 독일전 있는 27일에도 광화문 광장과 시청 광장에서 거리

응원이 진행된다.

대한민국 경기가 열리는 18일, 23일(24일 자정 경기), 27일에는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KT 흥보 부스 체험 및 포토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KT는 이번 월드컵을 위해 응원 티셔츠와 응원 도구(클래퍼)를 제작해 거리응원에 참여한 시민들과 러시아로 원정 응원을 간 붉은악마와 현지 교민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거리응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멤버십 특별 할인 혜택도 준비했다. 한국 경기가 열리는 날인 18일에는 도미노피자를 50% 할인(온라인 주문 후 방문 포장, 5만명 한정) 받을 수 있고, 23일(24일 자정 경기)에는 BBQ 치킨을 5000원 할인(온라인 주문, 5만명 한정) 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폭염대비 119구조·구급상황실 ‘풀가동’

### 소방재난본부, 취약주민 우선 폭염경보때 ‘119안전캠프’ 운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폭염대비 긴급구조·구급 기간’으로 운영한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서울종합방재센터, 특수구조단, 24개 전 소방서에서 ‘폭염대책 119구조·구급상황실’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쪽방촌, 거리 노숙인, 독거중증장애인 등 폭염 취약 주민을 우선 관리해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독거중증장애인 811명에게 전담 의용소방대원을 지정, 생활 불편사항을 밀착 관리하는 ‘119안전지원 서비스’를 주 1회 이상 제공한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시내 쪽방촌 12개 지역에 간이응급소형식의 ‘119안전캠프’를 운영한다. 주민, 온열환자 등을 대상으로 헬당, 헐압 등 기초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응급약품, 얼음 아리수 등을 제공한다. 7~8월 서울 전역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총 117곳에서 더위에 지친 시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119폭염 휴게실’을 마련해 운영한다.

서울역 등 12개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에는 ‘119순회 구급대’가 순찰활동을 벌

인다. 구급대 172대로 편성·운영한다.

정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임시전원을 공급하는 비상발전차 4대를 강남소방서, 도봉소방서 등에 배치한다.

폭염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원들의 탈수 증상을 막기 위해 쿨링 조끼, 두건, 토시를 보급하고 구급차에는 아이스박스를 상시 배치한다.

정문호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약자의 경우 12시에서 17시까지는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거주지에서 가까운 119폭염 휴게실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제설장비, 도로 미세먼지 제거장비 변신

겨울철 도로결빙을 막기 위해 사용됐던 제설장비가 올여름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장비로 변신한다.

서울시는 겨울철 초동 제설작업을 위해 설치한 ‘자동액상살포장치’를 여름철에도 가동해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 작업에 사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액상살포장치는 노즐을 통해 도로 노면으로 눈을 녹이는 염수를 자동 분사하는 장치이다. 동작대교 남단, 도립고가차도, 남산소피길 등 서울 전역의 제설 취약지점 53곳의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돼 있다.

시는 여름철 장치에 염수 대신 깨끗한



자동액상살포장치 가동 모습. /서울시

물을 넣어 도로에 뿌려 자동차 배기ガ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로 열기도 식힐 계획이다. 추가 예산이나 인력 투입이 필요 없어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고 시

### 서울시, 자동액상살포장치 가동 예산·인력투입 없이 탄력 운영

는 설명했다.

자동액상살포장치 가동 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과 폭염특보가 내린 날 교통상황과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동시간과 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겨울철 제설기간에만 활용했던 제설장비를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 완화 등을 위해 확대 활용하게 됐다”며 “도로 노면에 물 분사 시 차량의 물 뒤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메신저 전송

서울시, 종이고지서 전자로 전환



고지서 송달기간도  
확정 후 즉시 도착으  
로 변경해 오배송으  
로 인한 과태료 가산  
금, 차량 압류 등의 불

이익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11일 오전 시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지서 전자고지와 인터넷 이용환경 향상 외에 공공부문에 인터넷주소 체계

차세대 버전인 ‘IPv6’로 선도적으로 도입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IPv4 버전의 주소 수가 고갈되고 있어 주소 수를 무한대로 늘리기 위해서다.

서울 펀테크랩 입주기업이 만든 프로그램의 보안문제도 확인한다. 주요 공공 사물인터넷 서비스 보안성도 시험·인증 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사물인터넷, 펀테크 등 ICT 첨단기술을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적용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월드컵 16강 향한 ‘수중 슛~’

한화 아쿠아플라넷63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지하 1층 아쿠아플라넷63 메인수조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러시아 월드컵 16강 진출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저소득층 가정 학생 3168명에 장학금 지원

### 서울장학재단

22일까지 학교별 추천학생 모집

서울장학재단은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희망고교장학금 등 2개 분야로 나눠 총 3168명을 모집한다.

서울희망고교장학금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중위소득 80% 이내의 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선발된 장학생은 분기별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수업료가 면제되는 특성화고등학

교 학생들은 학교운영비만 지원한다.

서울희망고교장학금은 학교별로 2명씩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이다. 선발된 장학생은 2개 학기 75만 원씩 연간 1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상이 되는 학생은 11~22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담당 교사가 장학생 선발시스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교사가 관리자 모드로 접속해 등록하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마포구,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운영

서울마포구는 산업폐기물을 생활소품으로 재활용하는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창의력 원정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 디자인 워크숍

은 사용하고 남은 물건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디자인 능력과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김현정 기자

## 중구, 노점597곳 실명제 허가갱신

서울중구는 남대문시장과 명동관광특구 내 노점 597곳의 노점실명제 허가 갱신에着手한다고 11일 밝혔다. 노점실명제는 노점에 1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1인 1노점 및 본인 운영, 노점 영업권 거래 금지, 안전·위생관리, 질서준수 등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김현정 기자